



2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힐스테이트배 V리그 배구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레안드로가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철인' 탄생

첼린지컵시리즈 2명 완주
1위 박동식·2위 조의행씨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능케 하는 2006 첼린지컵 시리즈가 올해는 완주자 두 명을 배출하고 지난 23일 새벽 마무리됐다.

첼린지컵시리즈는 철인3종경기 동호인이자 환경운동가인 박기섭(40)씨가 '인간한계 스포츠의 멀티 플레이어'를 찾아라'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해 창설한 대회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4종목을 모두 완주한 선수에게 '철인' 칭호를 부여하고 4종목 점수 합산으로 순위를 가리는 이색 대회.

봄에는 한강변에서 24시간 달리기, 여름에는 제주 삼산포에서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뛰는 철인 3종경기를 치렀다.

봄 한강변 24시간 달리기

여름 제주서 철인 3종 경기

가을 100km 아웃리거 카누

겨울 100km 스키 크로스컨트리

가을에는 충청도 당진 앞바다에서 100km 아웃리거 카누를, 겨울에는 강원도 평창 크로스컨트리 코스에서 100km 스키 크로스컨트리를 벌였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날에 맞춰 열린 경기에서 하루 내에 각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이 결과 여행사진작가 박동식(40·오른쪽)씨가 22일 크로스컨트리에서 12시간30분24초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 4종목 합산 전체 1위로 대회를 마쳤다.

2위는 올해 56세의 조의행(기능공·왼쪽)씨로 마지막 판문을 15시간15분50초로 통과, 노익장을 과시하며 올해 두 번째 완주자로 남게 됐다.

대회를 주최한 박기섭씨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못해 우승과 준우승자에게 상금을 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특성을 강력히 주장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레안드로 나홀로 49득점 "메리 크리스마스!"

'무적 함대' 삼성화재가 지난해 통합 챔피언인 '장신 군단' 현대캐피탈과 첫 대결에서 승리하며 정상탈환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삼성화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그랜드 개막전에서 혼자 49점을 따낸 레안드로 다 실바를 앞세워 손 투니가 버틴 현대캐피탈을 3-2(26-24 19-25 27-25 25-27 15-8)로 물리쳤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지난 해 챔피언결정전 패배로 겨울리그 10연패 꿈이 좌절됐던 아쉬움을 털고 아마와 프로를 합쳐 통산 300승 고지에 올랐다.

또 삼성화재가 투니 대항마로 영입한 브라질 국가대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꺾고 개막전 승 삼성 아마·프로 통산 300승 고지 올라

표 경력의 레안드로는 혼자 서브 에이스 3개를 포함해 무려 49점을 얻어 지난 3월7일 이경수(LIG)가 현대캐피탈에서 기록한 종전 한 경기 최다득점기록(38점)을 갈아치우며 올 시즌 맹활약을 예고했다.

반면 후인정 등 2006 도하아시아게임 우승 주역 6명이 포진한 현대캐피탈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삼성에 무너졌다.

'우승 청부사' 레안드로는 첫 세트 208cm의 장신에 응수할 같은 탄력으로 초반 경기의 흐름을 삼성쪽으로 돌렸다.

11-15로 끌려가던 1세트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로 연속 득점한 레안드로는 23-24에서 직선강타로 듀스를 만든 뒤 26-25에서 백어택 라인 뒤에서 솟구쳐 오른 뒤 스파이크를 상대 코트에 꽂아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현대 2세트 이선규, 윤봉우, 하경민 등 '아시아게임 센터 트리오'의 높이와 철벽 블로킹으로 삼성 공격을 차단하며 세트를 만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부의 분수령은 세트 스코어 1-1로 균형을 이룬 3세트. 삼성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시소게임을 이어가다 21-22에서 레안드로의 3연속 강타로 듀스를 만든 뒤 26-25에서 레안드로의 백어택 한방으로 균형을 깬다.

현대의 거센 추격에 휘말려 듀스 대결을 벌인 4세트를 내워 최종 5세트로 넘어간 삼성은 레프트 신진식과 손재홍의 활약으로 일찌감치 12-6, 더블 스코어 리드를 잡았고 마지막 14-8에서 레안드로의 강타가 상대 코트에서 투니 손을 맞고 떨어져 승부를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점 박지성 '최상 아니었다' 5 설기현 '개성 안보였다' 이영표 '영향력 없었다'

프리미어리거 3인 성적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1호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왼발목 인대 부상을 딛고 4개월만에 녹색 그라운드를 밟았다.

맨유는 '산소탱크' 박지성의 활약을 앞세워 아스톤 빌라를 3-0으로 꺾고 리그 1위를 지켜냈다.

박지성은 24일(한국시간) 새벽 끝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차전 아스톤 빌라와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날개로 선발출전해 후반 20분 웨인 루니와 교체될 때까지 빠른 측면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65분간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박지성의 맨유 입단 이후 50번째 출격.

맨유는 이날 2골을 터트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원맨쇼와 폴 스콜스의 기막힌 중거리포를 앞세워 아스톤 빌라를 3-0으로 물리치고 올 시즌 15승2무2패(승점 47)로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날 맨유의 4-4-2 포메이션에서 호날두

와 함께 나란히 좌우 측면 공격을 맡은 박지성은 킥오프 직후부터 빠른 측면 돌파로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흔들었다.

이밖에 박지성과 함께 나란히 선발출전해 관심을 모았던 설기현(27·레딩)과 이영표(29·토트넘)는 각각 0-2, 1-3으로 아쉽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말았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박지성에게 비교적 낮은 평점인 5점을 매겼다.

박지성은 나름대로 빠른 측면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공격포인트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인지 '최상은 아니었다(Not at best)'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성과 함께 선발 출격한 설기현(27·레딩), 이영표(29·토트넘)도 나란히 평점 5점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설기현은 '개성이 없었다(Anonymous)'는 평가를 받았고, 이영표에게는 '영향력이 없었다(Little impact)'는 평이 돌아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고에서도 우아한 '피겨여왕' 김연아

'피겨요정' 김연아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목동실내아이스링크에서 KB국민은행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연아의 CF는 1월부터 지상파 방송 등의 광고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연합뉴스

북한 여자축구 세계랭킹 5위

2006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우승해 저력을 과시한 북한여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5위에 올랐다.

23일(한국시간) FIFA의 여자축구 세계랭킹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랭킹 포인트 2천24점으로 지난 9월부터 25점 상승해 7위에서 5위로 진입했다. 여자축구 랭킹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한다. 1위는 독일, 2~4위는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었다.

북한은 아시아게임에서 중국, 일본을 차례로 격파한 데 힘입어 브라질(6위), 프랑스(7위)를 제쳤다.

한국은 아시아게임 4강에 들기는 했지만 랭킹이 한 계단 떨어져 23위에 머물렀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9, 10위에 자리했다.